

광주 백화점·대형마트 ‘울고 싶어라’

장기 불황에 긴 장마 겹쳐 여름장사 한숨만

신세계 4.3% 감소 롯데 0.5% 상승 그쳐

백화점 등 광주 지역 대형유통업체들이 연이은 매출 감소에 울상이다. 업계는 계절적 요인과 의무휴업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 소비심리가 영영 살아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30일 지역 백화점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끝난 ㈜광주신세계와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여름 정기 할인행사 결과 매출이 각각 4.3% 감소

와 0.5% 상승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신세계는 행사 기간 무더위와 장마가 겹친 데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고객들의 소비심리가 주춤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역시 같은 기간 여름 정기 할인행사에서 소폭 신장에 그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중한 롯데백화점 광주점 영업총

팔팅장은 “불황과 번덕스러운 날씨 영향으로 특수가 실종되면서 여름 정기 할인행사 매출 실적이 소폭 신장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는데다 장기적인 침체로 딱히 이를 반등 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농축산물이 주도하는 생필품 가격의 인상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봄 정기 세일 행사에서 10%대를 기록했던 매출이 6.1% 신장이라는 부진한 성적을 거뒀고 롯데백화점 광주점 역시 전년대

비 0.2%p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대형마트의 상황도 비슷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상반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6.4%, 5.9%, 5.7% 하락한 것으로 집계 됐다. 특히 서민들의 소비심리를 관세로 대변하는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의 매출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주상품군인 식품류(-7.4%)를 포함해 의류(-7.6%), 가정생활(-5.7%) 등 모든 품목의 매출이 감소했

다. 이 같은 매출감소는 올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의무휴업과 자율휴업이 실시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백화점업계 한 관계자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는 어느 정도 예측했지만 워낙 큰 폭이다 보니 위기감마저 느끼고 있다”며 “장마 후 본격적인 바캉스철을 맞아 이벤트와 기획전을 확대하는 등 불황 타개를 위한 대대적인 영업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상반기 경상흑자 298억달러 ‘사상 최대’

6월 72억달러 기록

17개월 연속 흑자

지난 6월 경상수지가 1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었다. 상반기 흑자액은 역대 최대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는 72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월간 역대 최대였던 전월의 86억4000만달러보다는 줄었지만 17개월째 흑자다.

상반기 전체 흑자액은 297억7000만달러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상반기(221억달러)의 종전 역대 최대치 기록도 뛰어넘었다. 6월 경상수지의 흑자는 상품 수입(403억3000만달러)이 작년 동월보다 3.4% 줄었지만 수출(453억6000만달러)은 3.1% 감소에 그친 데 따른 것이다. 수입액 감소는 기본적으로 국제유가 등 하락에 따른 것으로, 수입물량(선박제외) 자체는 3.0% 증가했다. 품목별(통관기준)로 보면 선박(9.1%), 반도체(6.6%), 화공품(7.1%)



등의 수출이 늘었다. 반면에 디스플레이패널(-17.0%), 철강(-9.4%), 자동차부품(-4.7%) 등은 줄었다. 상반기 전체로는 정보통신기기(16.6%), 반도체(8.9%), 화공품(9.5%), 자동차부품(5.6%) 등이 늘었고 선박(-25.4%), 철강(-7.8%) 등이 감소했다.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등급 ‘공정적’

나이스신용평가, 상향조정

나이스신용평가는 30일 금호타이어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채권단 공동관리 이후 사업지위 회복과 경영합리화 작업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수익창출력 강화와 재무안정성 개선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상향 조정에 대해 설명했다. 또 구조조정에 따른 원가구조 개선과 가동률 향상으로 인한 고정비부담 능력 개선, 해외 생산능력 확충 및 수출처 다변화에 따른 사업경쟁력 제고 등을 고려해 금호타이어의 기업 신용등급을 ‘BBB-’ 그대로 유지했다. 이와 함께 금호타이어의 사업위험성은 ‘낮음’, 재무위험성은 ‘보통’ 등으로 공시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지난해 저소득층만 자산 줄었다

전체 가구 6% 증가... 소득하위 20%는 10% ↓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자산이 6% 증가했지만, 소득 하위 20% 가구는 1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 김태완 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보고서를 보면, 작년 소득 5분위 중 최하위인 1분위 가구의 자산액은 1억원이 채 안 되는 9899만원으로 조사됐다. 1년 전 1억846만원에 비해 1000만원이 감소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 2~5분위 가구의 자산액은 71만~8660만원 늘었다. 우리 국민 전체로는 가구당 자산액이 2억9765만원에서 3억1495만원으로 1730만원 증가했다.

자산에서 부채액을 뺀 ‘순자산’도 1분위 가구만 9401만원에서 8917만원으로 줄고, 2~5분위는 모두 늘었다. 2~4분위 중간소득 가구의 순자산이 385만~426만원 늘었고 상위 20% 가구는 7498만원이나 늘었다. 부채액의 경우 전체 가구는 평균 5205만원에서 5291만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소득 하위 20% 가구는 1445만원에서 982만원으로 32% 급감했다. 소득 1분위 가구의 부채액은 줄었지만, 이 계층이 부채를 끌어 쓴 용도 중 ‘생활비 마련’의 비율은 2011년 12%에서 지난해 20%로 증가했다. 소득 2~5분위 가구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돈을 빌린 경우는 3~10%에 그쳤다. /연합뉴스



30일 광주은행 본점 365열린코너 현금인출기 앞에 IC카드와 마그네틱 카드 겸용 사용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드 위변조를 통한 복제 사고를 막고자 8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은행이 운영 중인 전체 은행 현금인출기(ATM) 7만여대 중 80%에 대해 마그네틱 신용카드(MS)카드로 현금 인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광주은행 제공〉

내달부터 MS카드 현금인출 힘들어진다

〈마그네틱 카드〉

금감원, ATM 7만여대 중 80% 사용 금지

내달부터 마그네틱 신용카드(MS)를 이용한 은행 현금인출기(ATM) 사용이 힘들어진다. 감독당국이 카드 위변조를 통한 복제 사고를 막고자 MS카드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8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은행이 운영 중인 전체 ATM 7만여대 중 80%에 대해 MS카드로 현금 인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은 최근 고객에게 MS카드 사용 제한 강화 지침을 공시했다. 광주은행의 경우

MS카드가 9000여장 정도로 전체 카드의 1.5%수준에 불과해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꾸준히 MS카드 사용 제한 강화 지침을 공치해 거의 카드 교체가 이뤄졌다”며 “ATM기 5대 있는 곳은 1대가 IC/MS 공용 카드기 때문에 이곳을 이용하면 되지만 창구에서 빨리 IC카드로 교체 발급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위변조 방지를 위한 감독당국의 MS카드 제한 정책의 일환이다. 최근 5년간 2만7940건의 카드 복제사고로 300억원의 피해가 생겼기 때문이다. 모두 MS카드 복제 또는 가맹점

결제단말기 해킹에 의한 것이다. 감독당국은 올해 2월부터 MS카드 사용 제한을 시범 운영 중이다. 내달부터 ATM의 80%에서 MS카드의 현금 인출을 제한하며, 내년 2월부터는 모든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을 꺼내줄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MS카드로 ATM서 현금을 찾으려면 ‘IC/MS카드 겸용 사용 가능기기’ 스티커가 부착된 기기를 찾으려 다녀야 한다. MS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과 음식점 등 가맹점 결제도 내년 1월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카드 대출은 올해 말까지 기존 MS카드를 모두 IC카드로 전환해 현금서비스를 못 받도록 할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연합뉴스

수신금리 연 2.66%

대출금리 연 4.52%

지난달 은행의 예금 및 대출 평균금리가 다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6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평균 저축성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66%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하락했다. 대출금리도 연 4.52%로, 5월보다 0.10%포인트 떨어졌다. 대출금리는 지난 3월부터, 수신금리는 4월부터 매달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수신금리 중 정기예금을 보면 평균 연 2.63%로, 0.02%포인트 하락했다. 금리다별 가입액은 2~3% 미만인 전체의 92.3%를 차지했고 3~4% 미만은 4.5%였다. 2% 미만 금리를 적용받은 정기예금 가입액도 3.2%에 달했다. 대출 가운데 주택담보 대출은 연 3.73%로 0.04%포인트 떨어졌고 소액가계대출도 6.10%로 0.15%포인트 낮아졌다.

잔액 기준 총수신 금리는 연 2.36%, 총대출 금리는 4.96%로 각각 전월보다 0.07%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예대마진을 보여주는 총수신금리와 총대출금리의 차이는 전월과 같은 2.60%포인트다. 제2금융권으로 불리는 비은행 금융기관도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금리(1년 만기 정기예금 기준)와 대출금리(일반대출 기준)가 모두 낮아졌다. 예금을 보면 상호저축은행이 전월 3.16%에서 2.97%로 낮아지면서 2%대에 진입했으며 나머지 상호금융(2.86%), 신용협동조합(3.05%), 새마을금고(3.04%) 등도 0.10~0.11%포인트 내렸다. 대출 금리도 상호저축은행이 연 13.10%로 전월보다 0.63%포인트 하락했고 신용협동조합(5.75%), 상호금융(5.05%), 새마을금고(5.28%) 등 나머지 금융사도 0.16~0.19%포인트 떨어졌다.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300

알로에 겔 *Green aloe gold*

“ 국내 최고 함량으로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천연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력증진.장건강.피부건강**
도움을 줄 수 있음

‘그린알로에’의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합성보존료, 합성감미료, 합성착향료가 없는 '3無 제품'으로 우수한 품질력과 소비자의 기대를 만족시켜 '2013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건강기능식품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3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MASTER BRAND

알로에 베라겔 함량으로 400%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300 알로에 겔

면역력증진 300mg

그린 알로에 FOR YOUR HEALTH